

대학에
바란다

시대의 등불, 상아탑

이기용 | 충청북도교육감



신록만큼이나 푸른 생기가 묻어나는 5월의 대학 캠퍼스를 바라 볼 때면 젊은 열정과 패기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말 그대로 청춘 예찬이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거선(巨船)의 기관같이 힘이 있고 그들의 피는 끓는다. 인류의 역사(歷史)를 꾸며 내려온 동력(動力)이 바로 그들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고구려 태학, 신라 국학, 고려 국가감에서 시작하여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근대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의 굽직한 굽이마다 그 중심에는 살아있

는 양심을 실천한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처럼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현대에 이르러 다시 도전을 받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는 학문의 체계가 세분화되고 지식의 양이 방대해짐에 따라 연구와 교수 기능을 강화한 대학의 우월성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흐름을 반영하듯 대학교육은 대중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양적인 증가에 따른 대중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과 고학력 인플레이션, 학력의 질적 저하라는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과거의 대학은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대학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적 수준향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학문적 우월성(academic excellence)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학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대학은 인문학 중심의 교양교육에 더하여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기능을 강화하게 되었고, 산업 사회 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학문 연구와 응용학문의 기술 개발이라는 두 기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조벽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직면한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학교육을 위해 정부와 학회, 기업, 인력양성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공학교육인증(ABEEK)과 같은 '뚜렷한 성공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00년에 시작되어 3년에 한 번씩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측정하는 PISA(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2009년 평가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높

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 수준은 낮다고 한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고등학생이 이러한진대 대학생은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읽기에 대한 즐거움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읽기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비교적 교육 형평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강화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지켜볼 일이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각자가 모두 자신의 리더가 되는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할 책임이 교육, 그리고 대학에 있는 것이다.

대학은 대학이 속한 사회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을 통해 진정한 배움을 얻도록 이끌어 나가는 데 있다. 취업률과 같은 지표가 대학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하며 대학에는 실속 없는 스펙 쌓기에만 열중한 학생들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학은 평가가 보여주는 숫자 뿐 아니라 학생을 존중하는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강단에서 가르친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똑같

이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던 ‘재 생산’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재창조’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금 세분화·특성화·개별화된 맞춤형 대학교육이 필요하다.

순수학문은 순수학문대로 응용학문은 응용학문대로 각자의 특성을 분명히 하여 연구와 연구결과의 응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대학은 점수나 석차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다면평가를 활용하여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어쩔 수 없어 보이던 벽을 넘고야 마는 담쟁이 잎처럼 정직한 인성과 창의적인 지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입학사

정관계’를 올바르게 시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배움의 기쁨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식·정보의 양적 증대와 학문의 발전을 통해 사회의 잠재력을 일깨워야 한다.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유연한’ 대학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사회에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어 정도(正道)로 인도하는 심지 굳은 길잡이가 되고, 또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 않고 각고(刻苦)의 노력을 마다 않는 시대의 등불, 상아탑(象牙塔)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필자소개

이기용 | 충청북도교육감

중등학교 교사, 한국교육대학교 교육연구사,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장학사, 중등학교 교장, 충청북도괴산교육청교

육장,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을 역임하였다. 현재 제15대 충청북도교육감이다.